

미얀마 성보 미국 뉴욕 첫 나들이

아시아사사이터박물관서...
2월 10일부터 3개월간

부처님 입멸 후 천년동안 초기불교의 전통을 지켜낸 미얀마 불교미술의 진면목이 미국의 심장 뉴욕에서 처음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미얀마 온라인 매체 <DVB> 지는 "미얀마의 불교성보 70여 점이 오는 2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뉴욕 아시아사사이터박물관(Asia Society Museum) 특별전에서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특별전에서 미얀마 불교미술이 가나긴 세월을 이겨내며 간직해온 초기불교미술의 독특하고 섬세한 예술성과 불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DVB>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에서 선보일 미얀마 불교미술품은 70여 점으로 돌·청동·나무를 소재로 한 조각을 비롯해 섬유, 회화, 의구 등 다양하다. 또한 미얀마에서 불교미술이 어떻게 태동했고 시대·지역별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문화사학적 접근도 시도된다.

아시아사사이터박물관 측은 이번 '미얀마 특별전'에서 선보일 불교성보 대부분 미얀마 국립박물관, 바간 고고학박물관(Bagan Archaeological Museum), 스리 케트라 고고학박물관(Sri Ksetra Archaeological Museum), 카바 아예 불교미술박물관(Kaba Aye Buddhist Art Museum) 등지에서 입대했다. 이밖에 예도 미국 내 공공 및 사설박물관에서 소



붓다, 머리카락을 자르다(Buddha Severing His Hair, Bagan Archaeological Museum 소장)



마라의 악마(Mara's Demons, Shweguzyi Temple 소장)

돌·청동·나무 조각 등 70여 점 불교미술사 시대·지역별 소개
섬세한 예술성·불심 선보여

장하고 있는 미얀마 불교성보 역시 입대했다.

"아시아사사이터박물관의 '미얀마 특별전'은 경제발전 논리에 밀려 불교유물 보존에 적신호가 켜진 미얀마의 현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제한 톰 나고르스키(Tom Nagorski) 박물관 부관장은 "우리

는 이번 특별전에서 미얀마 불교미술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 입멸 이후 천년동안의 예술과 불심을 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얀마의 고대 불교유적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VB>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미얀마 불교조각의 독특하고 섬세한 미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미얀마 불교미술의 역사·문화적 흐름을 좇는 데에도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가 생활 그 자체로 발전해 생활용품 곳곳에서 불교미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데 주목한 아시아사사이터박물관 측은 미얀마인의

간절함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한다.

제1 전시관에서는 거대한 돌 부조가 돋보이는 퓨(Pyu)시대의 불교미술이, 제2 전시관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무역로를 제공했던 바간(Bagan)시대의 불교미술이 전시된다. 바간시대의 불교미술은 청동 조각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아바(Ava)시대와 콘바웅(Konbaung)왕조로 이어지는 제3·4 전시관 역시 미얀마의 아름답고 섬세한 불교미술 세계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전에서는 미얀마 전통의 춤, 노래, 인형극 등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70년대 스리 케트라 지역의 흠뻑에 발견된 '사암 조각' 이 백미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나고르스키 부관장은 "사암 조각은 발전 직후 학계의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조각에 근거하면 미얀마 불교는 기존의 학설보다 더욱 앞설 수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불교와 힌두교가 미얀마 사회에서 어떻게 융합되어 나갔는지를 유추하는데 중요한 사료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DVB> 지는 "미얀마는 지금까지도 1989년까지 영국의 식민지시대에 불렀던 '버마'로 서구 사회에 더 알려져 있다"며 "이번 특별전이 미얀마의 순수한 불교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을 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 벽화에 도라에몽... 어린이 큰 호응

태국 왓 삼파 시우 사찰, 만화캐릭터 벽화에 그려



벽화에 도라에몽이 그려졌지만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오른쪽 하단에 도라에몽이 그려져 있다.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태국의 한 사찰에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도라에몽이 그려져 화제다.

CCTV는 "태국의 왓 삼파 시우 사찰이 로봇 고양이 도라에몽을 벽화로 보일 듯 말 듯 그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몰려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찰 벽화에 도라에몽과 앵그리버드가 그려지고 도라에몽 동상이 세워진 것은 주지 러트짓사찰 스님의 역할이 컸다.

주지 스님은 "화가들에게 작품을 부탁할 때 불교적 도덕을 가르치기만 한다면 뭘든 원하는 것을 그려도 된다고 주문했

다"며 "벽화에 도라에몽이 그려질 것이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그런대로 보기가 괜찮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더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찰 내 도라에몽은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은 경내에 도라에몽 동상도 두어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심어주고 있다. 벽화불사에 참여한 한 화가는 "어린이들이 도라에몽을 보러 짙에 온다. 처음에는 캐릭터를 보러 오는 거겠지만 일단 한번 오게 되면 선한 감정을 맛보게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불광산사, 필리핀에 첫 불교대학 설립

불교·예술·춤 등 교육과정...2015년 첫 신입생 69명

인구 91% 가량이 기독교도인 필리핀에 첫 불교대학이 설립됐다.

<FOCUS TAIWAN> 지는 1월 19일(현지시간)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이 '학비 전액 무료로 운영될 불교대학'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성운 스님은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다닐라 파가이파이(Tagaytay)에 들어선 필리핀 불교대학은 불광산사 부설 '불교자선단체(Buddhist charity organization)'에 의해 설립됐다"며 "종교가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문화와 교육을 증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불광산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불교대학은 불광산사 산하 '불교자선단체'에 의해 세워진 다섯 번째 교육

기관이다. 이에 앞서 불광산사는 보광대학(Fo Guang University·대만), 난후아대학(Nanhua University·대만), 서부대학(University of the West·미국), 난티엔연구소(Nan Tien Institute·호주)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FOCUS TAIWAN> 지에 따르면 필리핀 불교대학은 지난해 10월 불교·예술·춤 등 3개 교육 과정으로 필리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고, 2월을 기점으로 69명의 신입생을 맞아 첫 학기를 시작한다.

신입생들은 파가이파이(Tagaytay) 캠퍼스의 기숙사가 세워질 때까지 보광산 마부하이(Mabuhay) 사찰에 머물며 교육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필리핀 불교대학의 헬렌 코레아(Helen Correa) 총장은 "인구 91% 가량이 기독교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가운데)이 '학비 전액 무료로 운영될 불교대학'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했다.

도인 필리핀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라며 "불광산사의 불교대학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운 스님은 산토 토마스 대학(University of Santo Tomas)에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교황 프란치스코 1세를 만났다.

오종욱 편집위원



1톤의 순금 씩은 불탑 태국 나콘시탐마랏에 위치한 왓프라마하타워라마하위한(Wat Phra Mahathat Woramahawihan) 사원 모습. 태국 남부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약 1700년 전 건축된 체디(태국식 불탑)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불탑은 높이 56미터로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봉안되었으며, 960kg의 순금으로 청대색 장식돼 있고 태국 25사당 화폐디자인에 사용됐을 정도로 유명하다. 나콘시탐마랏은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색과 자연을 간직한 태국 남부의 두 번째 대도시로 옛 왕국의 수도였다. 태국관광청은 태국을 세계적 브랜드로 홍보하기 위해 '2015 디스커버 타이니스(2015 Discover Thailand)'를 공식 런칭하고 나콘시탐마랏을 태국 전역의 숨은 보석 같은 지역 12곳 중 하나로 선정해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이 도시는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에 등장해 예로부터 유럽에서는 리고르(Ligor)로 알려졌다.

이나는 기자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시 : 2015년 양력 3월 6일 입교시작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하루에 총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 처음 입학시에는 한번 내는 입학비가 20만원입니다.)
- 형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 기본수업이 오전 9시부터 ~ 오후 2시까지 이고, 그 외에 타임은 교양과목입니다.
- 교육장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도량 내) "중앙불교대학" 3층 강의실
-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 교육내용 : ① 아침예불 / 중성 ②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③ 49재의식 (천도재의식) ④ 천수바라 나비춤 (도랑계 / 다계)

☆ 교육특강 ☆

- ▷ 오후 2시 ~ 3시 법고무 - 문곡스님
- ▷ 오후 3시 ~ 4시 명리 - 혜각스님
- ▷ 오후 4시 ~ 5시 태평소(호적) - 시우스님

문의전화 : ☎ 회장 관희 010-8290-6623
강주 문곡 010-3727-0870
총무 진호 010-5306-0856

www.송강사.kr/
松江汎音梵唄 전승회 會長 관희 합장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 직접 방문 요함.
2. 남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 경기 남부 지역.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오천구 허가필.
 -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Business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크절할때 40×80cm 160g
참회진언 타올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 ①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 ②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응물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